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미 연준 내부의 출구전략 논의 확대와 의미

- 최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잇달아 출구전략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코처라코타 총재는 2011년 미국 경제가 3% 성장하고 근원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연준이 올해 말 정책금리를 0.5%p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최근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재프리 랙커와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블라드 등도 6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연준의 국채매입 계획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한편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윌리엄 더들리는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상품가격 상승의 영향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함.

- 지난 5일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인플레이션과 출구전략에 대한 연준 위원들 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하며, 출구전략 시점에 대한 논의가 연준 내부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연준 위원들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국채매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2011년 이후까지 현재의 완화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버냉키 연준 의장 또한 글로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으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힘.
 - 3월 의사록에 나타난 이러한 논란은 연준이 출구전략의 시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과 상품 가격 상승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을 반영함.

(Wall Street Journal 등, 4/1)